전북 5대 종교인 '새만금 살리기' 한목소리

6월 18일 새만금 생명평화문화제 개최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만금 생태계 복원 염원 담아
2000년부터 장승 세우기 나서
법만 스님 등 참회문도 눈길



기도회에 참석한 불제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전북 부안 새만금 해창 갯벌의 해수유통 확대와 갯벌 생태계 복원의 염원을 담아 5대 종교 성직자들이 생명평화문화제를 개최했다.

6월 18일 전북 부안 새만금 해창갯벌에서 열린 생명평화문화제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과 참당암 수좌스님들, 김기석 전북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천주교 전주교구 문규현, 김희인, 최종수 신부, 개신교 전북 예수살기 이봉원 목사, 원불교 환경연대 하상덕 교무, 천도교 한울연대 매암 이재선 동덕, 새만금살리기 공동행동 이정현 공동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각 종교 성직자들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창갯벌 원상복원 염원을 담은 장승 5기를 세운 후 종교별로 진행하는 새만금 생명 평화 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천주교 전주교구 문규현 · 김희인 · 최종수 신부, 천도교 한울연대 이재선 동덕, 원불교환경연대 하상덕 교무, 전북 예수살기 이봉원 목사가 의례를 맡아 진행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기도문을 통해 "부처님 당신께서는 유정무정의 온갖 생명이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전 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으나 저희들은 자연 위에 군림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함부로 했다"며 "맑디 맑은 우리의 심성을 찾지 못하고 심술궂고 욕심내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른 지난날을 참회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새만금 방조제 사업은 갯벌 생태계는 물론 주변 어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세계 잼버리대회를 핑계로 남은 갯벌마저 매립하고 있다"며 "한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많은 돈을 들여 갯벌을 복원한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살아있는 갯벌을 매립해 공항을 짓겠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이정현 새만금 살리기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해 2월 새만금 위원회가 해수 유통을 결정했지만, 대선과 지선에서 새만금에 다시 개발 바람이 거세졌다"며 "새만금 해수 유통 확대와 갯벌 생태계 복원으로 민선 3기, 새만금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변화와 혁신의 공간으로 만들어가지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5대 종교 성직자들은 해창 장승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을 다시 생명의 바다로 만들자' 는 염원을 담아 2020년 6월 7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무더위와 장맛비, 눈보라 속에서도 20차례 기도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해창 갯벌의 장승과 조형물은 2000년부터 지역주민, 환경단체, 종교계 등에서 세우기 시작해 한때 수십 기가 모여 있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람과 눈비에 쓰러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한 '부안사람들과 환경단체, 종교인들이 최근 장승을 세워왔다. 5대 종교와 공동행동이 주관하는 새만금 해창 장승 세우기는 올해가 두 번째다.



화엄사 '제2회 요가대축제' 성료

요가를 통한 치유의 문화행사가 천년고찰에서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지난 6월 18일 경내 각황전 앞 마당에서 '제2회 화엄사 요가대축제' 를 열었다.

'화엄 하나되다, 화엄 빛이되다' 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요가회 회원들과 일반인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인류의 대표적 건강운동인 요가를 통해 '지구촌 사람들의 치유와 화합의 장' 을 여는 특별한 축제였다.

덕문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는 전 지구촌이 우려하고 있는 우쿠라이나 사태로 인해 세계평화의 가치를 견고히 하는 해이다. 요가는 정신건강을 위하여 육체노화를 지연시키는 운동으로 건강의 대명사"라고 말하며, "요가축제를 계기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불교연합회는 6월 27일 불지사서 법회를 봉행했다.

창원지역 발전위한 상생 기원 한마당

창원불교聯, 6월 27일 불지사서 선거 당선인 초청법회 개최

여야 정치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대법회가 창원에서 열렸다.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회장 정인)는 6월 27일 창원 불지사에서 '6.1지방선거 당선인 초청 경남 발전과 상생, 통합기원법회' 를 봉행했다.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장 정인 스님은 봉행사에서 "목표를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한다면 초심이요, 그 목표를 향해 게으름 없이 이어감이 발심이며 가는 도중에 번뇌 망상에 사로잡혀 사도(邪道)로 들어가지 않게 스스로 마음을 살펴보아 경계함이 자경심이다. 삼심(心)을 깊이 새겨 고정됨이 없이 정진하길 바란다"고 염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당선자 법회 인연과 사부대중과 함께하게 돼 감개무량하다. 상생과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정 활동에 있어 경남도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지사 정인 스님을 비롯해, 정인사 원행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원정 스님, 정법사 광우 스님, 정암사 상운 스님, 석봉암 월봉 스님, 백운사 석봉 스님, 송림사 지암 스님, 구룡사 무성 스님, 반야사 혜명 스님, 미타사 선혜 스님, 천웅사 성우 스님, 문수암 이암 스님, 대광사 무경 스님, 안국사 성오 스님 등 지역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인,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당선인 등 선거당선인들과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 각 사찰 신도회 회장단 및 사부대중 1000명이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 여름수련회 연다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바쁜 일상을 떠나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름수련회를 다시 연다.

'다시 일상으로, 산사에서 행복한 나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일반부 50명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사찰 기본예절 및 예불 습의, 108배 및 참선, 팔만대장경 사랑 3보 1배 등 3박 4일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초 · 중등부 50명을 대상으로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찰예절과 예불배우기, 명상체험, 팔만대장경 사랑 걷기 명상 등 2박 3일 과정이 진행된다.

수련회 참가 신청은 해인사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접수 마감은 7월 10일까지다. 각 부별 5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인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해인사는 "이곳에서 바쁜 일상을 떠나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참 나를 발견하는 행복한 여름 시간이 되길 주문했다.(055)934-3012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호국불교조계종 합동위령대재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4일 총본산 다부동 법전사(주지 혜륜)에서 제46회 순국선열 및 호국전몰군경 월남참전 무명용사 합동위령대재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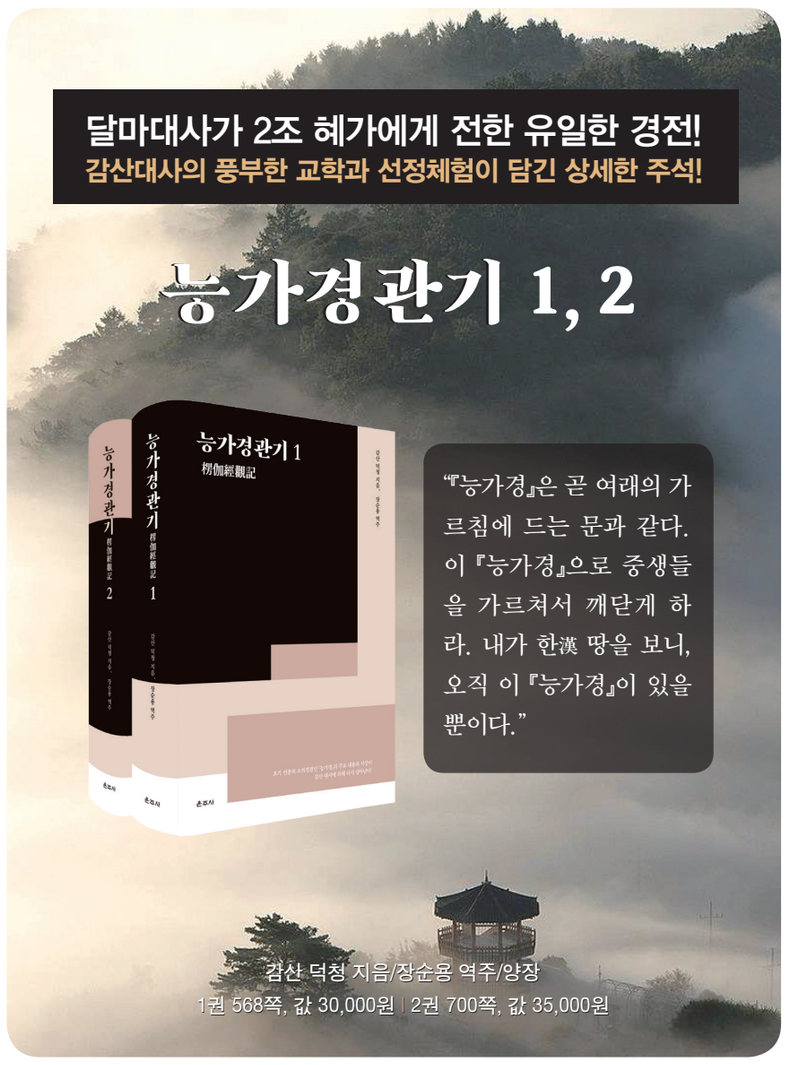
이날 행사는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의전단의 집전. 권공, 법요의식과 살풀이, 승무, 헌화 및 분향 등으로 진행됐다.

합동위령재에는 법전사 주지 혜륜 스님과 용화사 성문 스님, 홍련사 홍안 스님, 대현사 대연 스님, 동국사 진각 스님, 정광진 예술인연합회장, 김영애 한국명시낭송가협회 법인이사 및 관련 기관 단체장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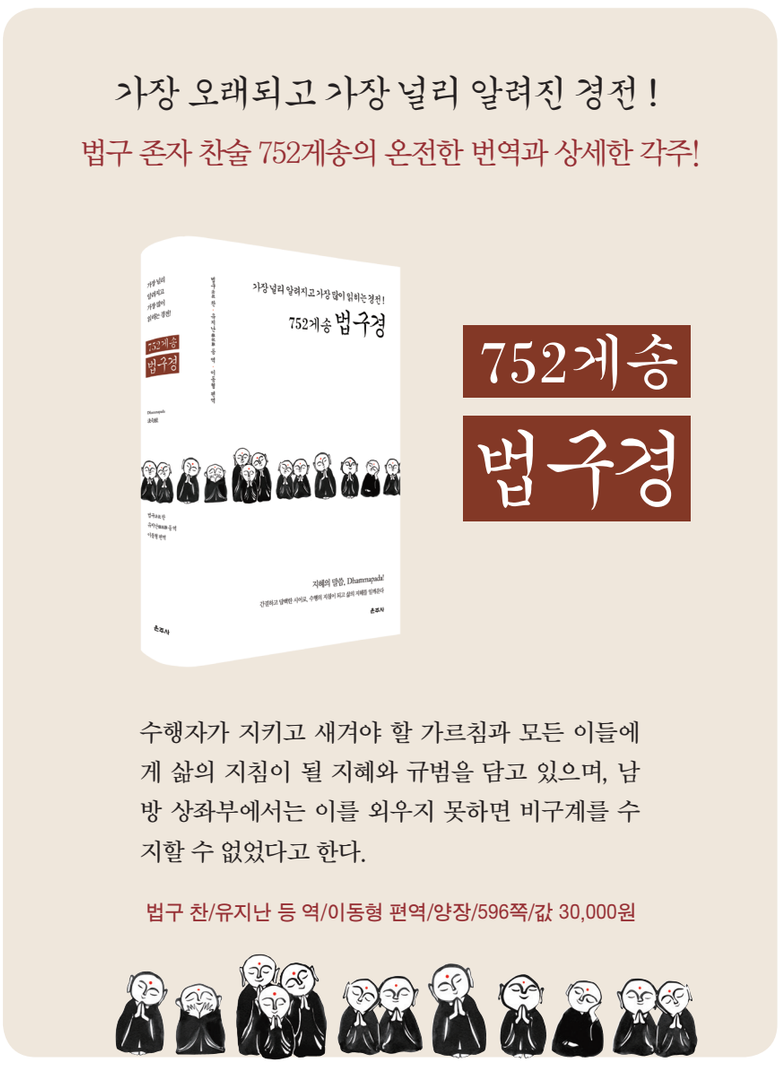


법전사 주지 혜륜 스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영령 위로와 함께 남북통일을 기원하자"며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유주무주 중생을 제도하고, 한국전쟁 참상을 거울삼아 민족화합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나가자"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